



박성현이 23일(현지시간) 미 미네소타주 채스카의 헤이즐턴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린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최종ラ운드 18번홀에서 버디를 잡고 환호하고 있다. 지난해 우승자 박성현은 4타를 줄여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로 이븐파에 그친 한나그린에 불과 1타 뒤진 2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 박성현,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준우승

박성현(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총상금 385만 달러)에서 이렇게 준우승에 그쳤다.

박성현은 24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채스카의 헤이즐턴 내셔널 골프클럽(파 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1개를 쳐 8언더파 280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를 친 박성현은 해나 그린(호주)에 1타차로 밀려 우승에 실패했다. 대회 2연패 달성을 무산됐다.

그린은 5타차로 뒤진 채 4라운드를 시작한 박성현은 조금씩 격차를 줄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18번홀에서도 버디를 잡아 상대가 실수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린은 18번홀에서 힘겹게 파 퍼트에 성공해 박성현의 추격을 뿌리쳤다. 그린은 박성현의 맹추격에 당황했지만, 끝까지 리드를 지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LPGA 투어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달성하는 감격을 만끽했다. 우승상금은 57만500달러(한화 약 6억7000만원)다.

이미립(29), 김효주(24), 박인비(31)는 최종합계 4언더파 284타로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이 대회 준우승자 유소연(29)은 3언더파 285타로 공동 10위에 랭크됐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24)은 2언더파 286타를 기록해 공동 14위에 올랐다.

뉴시스

# 체력 아낀 울산·전북 홈에서 ACL 8강 도전

내일 각각 日 우라와·中 상강과 16강 2차전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가 홈에서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을 노린다. 19일 상하이 상강(중국)의 홈인 상하이 스타디움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문선민이 골을 넣으며 앞섰지만, 전반 38분 원정차오에게 골을 내줬다.

울산과 전북은 26일 홈에서 2019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치른다.

성적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쪽은 울산이다. 울산은 지난 19일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2002에서 열린 우리와 대회 16강 1차전에서 2-1로 이겼다. 전반 37분 우라와 공격수 스기모토 겐유에게 헤더 골을 내줬지만, 5분 뒤 주민규가 헤더로 균형을 맞췄고 후반 35분 황일수가 역전 결승골을 터뜨려 짜릿한 승리를 막았다.

울산은 이날 승리로 AFC 챔피언스리그 일본 원정 악연에서 벗어났다. 선수단의 컨디션도 좋다. 돌아온 태이브 블루이스가 수비진에 안정감을 불어넣고 있고 주민규, 황일수 등 공격진의 품 또한 나쁘지 않다. 특히 주민규는 A매치 휴식이 동안 컨디션을 크게 끌어올려 김도훈 감

독의 선택을 받았고, 1차전서 이근호의 크로스를 받아 둘점 헤더 골을 넣는 등 좋은 활약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2차전에서도 기대가 쏠린다.

같은날 경기를 벌이는 전북은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8강 진출을 노린다. 19일 상하이 상강(중국)의 홈인 상하이 스타디움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문선민이 골을 넣으며 앞섰지만, 전반 38분 원정차오에게 골을 내줬다.

울산민들은 아니지만, 상대방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원정에서 골을 넣고 비겼기 때문에 전북 또한 홈에서 0-0 무승부만 따내도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8강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북은 주전 선수들을 투입해 승리를 노리겠다는 다짐이다. 29일 수원 삼성과 경기를 연기하는 대신 로테이션을 거친 후 전선수들에게 휴식을 줬다. 티아고, 한승규 등 기존에 기회를 얻지 못한 선수들을 내세우고 김신욱과 로페즈는 벤치에서 대기시키다 후반에서야 투입했다. 수원과는 1-1로 비겼지만, 상하이전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선공을 거뒀다.

상대인 상하이는 22일 리그 경기를 치렀다. 전북과 달리 로테이션을 단행하지 않았다. 홈에서 오스카, 엘케손 등의 골을 뛰어 3-0 완승을 거두고 한국 원정 길에 오른다.

## LG 고우석 '155km'…KBO리그 주간 최고구속 1위

### KIA 타이거즈전 9회 최원준 상대 9구째

LG 트윈스 고우석(21)이 지난주 KBO리그에서 가장 빠른 볼을 던졌다.

KBO 공식 기록통계업체 스포츠 투이어는 24일 "지난 18일부터 23일 까지 투구주적시스템(PTS) 데이터를 통해 KBO리그 투수들의 투구 구속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간 최고 구속 1위는 고우석이다. 21일 잠실 KIA 타이거즈전에서 9회 최원준을 상대로 3볼2스트라이크에서 9구째 시속 155km의 직구(포심 패스트볼)를 뺐었다. 이 공은 바깥쪽으로 벗어나 볼넷이 됐다.

하지만 '구속' 면에서 고우석에게 의미가 있다. 2017년 프로에 입단한 그가 KBO리그 무대에서 던진 가장 빠른 공이기 때문이다. 11일 잠실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9회 민병헌과의 맞대결에서 3구째 시속 154.7km 짜리 직구를 던져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이를 10일 만에 갈아 치웠다.

고우석은 올 시즌 직구 200구 이상을 던진 투수 203명 가운데 시속 150.3km로 3위에 올라 있다. 키움 조상우가 153.3km로 1위, SK 양현 산체스가 평균 151.2km의 직구를 던져 2위다.



한편, 시즌 최고 구속은 조상우가 가지고 있다. 지난달 2일 인천 SK 와이번스전에서 9회 제이미 로맥을 상대로 시속 157.2km의 빠른 볼을 기록했다.

### 수영대회 100배 즐기기



### 세계선수권 vs 올림픽 차이점

개최기관·대회주기·종목수·금메달수·동호인대회 등



Fina  
WORLD  
CHAMPIONSHIPS

세계 수영선수권과 하계올림픽은 축구 월드컵, 세계 육상선수권과 더불어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수영 종목만 놓고 보면 세계선수권은 올림픽의 진초전, 가는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차이점도 적지 않다.

크게 5가지에서 다르다. 개최기관과 대회주기가 다르고 종목과 메달수, 즉 세부종목도 차이가 난다. 동호인 대회 유무도 다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국제수영연맹(FINA)이 주최하고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주최권과 종목 신설, 폐지권이 있다. 1908년 설립된 FINA는 단일 분야로 6개 종목만 나蠹지만 회원국은 209개로 1894년 설립된 IOC보다 1개국 더 많다. 두 기관 모두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점은 공통점이다.

개최 주기는 세계선수권은 2년 주기인 반면 올림픽은 4년 주기다.

종목수는 올림픽 수영은 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수영, 오픈워터수영 등 모두 5개고 세계선수권은 여기에 하이다이빙(High Diving)을 더해 총 6개 종목이다.

6개 종목 중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경기로, 쌔릿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연상시켜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지만 한국은 불모지나 다름없이 유일하게 국내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종목이다.

세부종목으로는 올림픽이 46개인데 비해 세계선수권은 76개로 금메달수만 따지면 세계선수권이 30개나 많다.

'찰나의 예술'로 통하는 다이빙의 경우 스프링보드 1m와 팀 다이빙(스프링보드 3m 및 플랫폼 10m

결합)과 혼성(싱크로나이즈드 스프링보드 3m 및 플랫폼 10m) 종목이 올림픽에선 볼 수 있지만 세계선수권에서는 정식 종목이다.

'수영미리온'으로 통하는 오픈워터수영은 흥미롭게도 첫 3번(1869년, 1900년, 1904년)의 올림픽기간 동안에는 모든 수영 경기가 오픈워터에서 개최됐다. 이후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처음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후 4년마다 10km 단일 코스에 한해 남녀 우승자를 가리고 있다.

이에 비해 세계선수권은 보다 세분화돼 남자와 여자 각각 5km, 10km, 25km 경합 및 5km 팀릴레이가 펼쳐진다. 1991년 대회에서 25km가 추가되고, 1998년에는 5km, 2001년에는 10km가 추가됐다. 이어 2011년에는 팀 경기가 더해졌다.

'수영의 꽃'인 경영에서는 세계선수권에 걸린 금메달이 올림픽 골드메달보다 10개나 많다.

남자 자유형 800m, 여자 자유형 1500m, 남녀 각각 배영 50m, 평형 50m, 접영 50m, 혼성혼계영 400m 등이다. 전체 금메달수는 올림픽이 32개, 세계선수권이 42개다.

'물속의 발레'로 불리는 아티스틱 스위밍(Artistic Swimming)도 세계선수권이 10개로, 올림픽 금메달 수보다 8개나 많다.

올림픽에서는 듀엣과 팀 대항전만 있지만, 세계선수권에서는 선수 구성에 따라 솔로와 듀엣, 팀, 믹스드 듀엣, 프리 콤비네이션, 하이아이트루팀으로 나뉘어 열리며 총 10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으며 각 종목마다 1~30초에서 4분30초 까지 연기를 펼친다.

올림픽에서는 국가대항전으로 끝나지만 세계수영대회에서는 선수권대회 직후 동호인들의 잔치인 마스터즈대회가 연이어 열린다. 개인 종목은 만 25세부터 5세 단위로 69세까지 나뉘고 단체 종목은 팀원들의 나이를 대해 40세 단위로 나뉘어 경기를 치른다.

## 쉽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자연 으뜸 지리산  
Road to Nature, Gurye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온천, 침새미골, 화연사, 섬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전·신동 구간부터 목아재·가단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